

당오대(唐五代) 유배관리의 시기 및 지역분포에 관한 정량(定量) 분석*

상용량**

국문요약

유배와 유배문학은 이미 문학 역사학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연구방법상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역사문화 비평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오대(唐五代, 621~960) 유배 관리의 전체 수량 및 그 분포시기·분포지역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통계적인 방법을 시험적으로 이용하여, 당오대 유배 관리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 및 그 발전변화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당오대, 340 여년간, 유배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유배 관리는 모두 2,828명에 이른다. 그 분포시기를 보면, 중당(中唐)시기가 가장 많다. 분포지역으로 보자면, 남방 지방에 속하는 영남도(嶺南道)·강남서(江南西)·동도(東道)와 산남동도(山南東道) 등은 황폐하고 편벽하여, 유배지로서 적격이었다. 그 중 가장 으뜸은 바로 영남도(嶺南道)·강남서도(江

* 이 논문은 제주학회, 유배문화심포의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2017 제주 국제학술대회, “단절을 넘어 소통으로” - 유배섬의 역사와 문화교류 (2017.1.11.~12., 제주)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한 것으로, 한국어 번역은 김원희(제주한라대학교 관광중국어과 겸임교수)가 하였다.

** 尙永亮, 中国 武汉大学 教育部 长江学者 特聘教授

南西道)가 관리하던 39주(州)로 당오대(唐五代) 유배관리 전체 총수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절대수량에서 보자면, 중당(中唐)시기와 영남도(嶺南道)·강남서도(江南西道) 등지의 연인원 유배관리 수가 가장 많아 중시될 만하지만, 이는 결코 기타 시기 기타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각 시대 각 지역은 모두 그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당시 정치 문화와 관련하여 발굴과 이용의 가치가 있다.

주제어: 당, 오대, 유배, 유배관리, 정량분석

I. 서론

당오대(唐五代, 621~960), 340 여년간, 이름을 고증할 수 있고, 유배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유배 관리는 모두 2,828명에 이른다. 그 분포시기를 보면, 중당인(中唐人)의 수가 가장 많다. 그 수가 많은 순서는 헌종(憲宗)·문종(文宗)·현종(玄宗)·선종(宣宗)·의종(懿宗)·덕종(德宗)·무후(武后)·대종(代宗)·고종(高宗) 등의 조대(朝代)로 매겨진다. 분포지역으로 보자면, 남방은 당(唐)왕조에서 관원들을 유배시키는 주된 지역으로, 영남도(嶺南道)·강남서(江南西)·동도(東道)와 산남동도(山南東道) 등은 황폐하고 편벽하여, 관리들을 유배 형벌로 처벌하는 적격지가 되었다. 그 중 가장 으뜸으로 뽑는 곳은 바로 영남도(嶺南道)·강남서도(江南西道)가 관리하던 39주(州)로, 유배된 관리가 모두 합쳐 721명에 이르러, 당오대(唐五代) 유배관리 전체 총수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특수한 정치문화현상으로서 유배(혹은 폼적貶謫)와 유배문학(혹은 폼적문학貶謫文學)은 이미 문학 역사학계의 적극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연구방법상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역사문화 비평법을 운용하고 있어, 당오대(唐五代) 유배 관리[혹은 폼적관리貶官]의 전체 수량 및 그 분포시기·분포지역에 대한 실증적 고찰

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는, 이론적 분석과 실제 역사 사이의 일정 간격을 초래하기 쉽고, 또 당오대(唐五代) 340 여년간 유배 상황에 대한 동태적 파악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문은 통계적인 방법을 시험적으로 이용하여, 당오대(唐五代) 유배 관리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 및 그 발전변화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이 논제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개척되고 심화되길 기대한다.

II. 본론

시대구분 상, 전통적인 초(初)·성(盛)·중(中)·만(晩) 사당설(四唐說)에서 오대(五代)를 더하여, 모두 다섯 개의 기간으로 나누었다. 지역구분 상에서는 당(唐)의 십오도(十五道)에 의거하여 고찰을 진행하였다. 그 중, 진령(秦嶺)·회수(淮水) 이북에 위치한 칠도(七道), 즉 관내(關內)·농우(隴右)·하동(河東)·하북(河北)·하남(河南)·경기(京畿)·도기(都畿)의 여러 도(道)는 대략 북방지역에 속한다. 진령(秦嶺)·회수(淮水) 이남에 위치한 팔도(八道), 즉 검남(劍南)·산남동(山南東)·산남서(山南西)·회남(淮南)·영남(嶺南)·강남동(江南東)·강남서(江南西)·검중(黔中)의 여러 도(道)는 기본적으로 남방지역에 속한다.

우리는 여러 문헌사료에 대한 윤독에서 얻어진 수치를 통해, 위에서 서술한 시간 공간 구분법에 따라 표를 제작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당오대(唐五代) 시기 유배관리의 연인원 시간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는 전체 표를 얻게 되었다.

[표] 1 당오대(唐五代) 유배 관리 인원수 시공간 분포표¹⁾

시기 지역		초당 (初唐)	성당 (盛唐)	중당 (中唐)	만당 (晩唐)	오대 (五代)	총계
북 방 北 方	京畿道	26	26	35	41	6	134
	關內道	20	4	13	10	25	72
	都畿道	17	18	42	70	9	156
	河南道	36	52	4	63	41	196
	隴右道	19	3	3	2	5	32
	河北道	27	27	5	13	12	84
	河東道	35	34	34	23	22	148
남 방 南 方	淮南道	33	18	30	28	11	120
	山南東道	20	38	73	77	34	242
	山南西道	37	29	37	33	1	137
	江南東道	43	57	95	75	7	277
	江南西道	44	64	180	94	20	402
	劍南道	58	26	22	31	18	155
	黔中道	17	31	26	9	5	88
기타 ²⁾		69	41	28	8	3	149
총 계		598	543	750	711	226	2828

[표] 1에 근거하여, 당오대(唐五代)에 이름이 남아 있어 고증이 가능하고, 유배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 유배관리는 모두 2,828명에 이르며³⁾, 당오대(唐五代) 342년 동안 그 평균값을 구해보면, 매년

- 1) 이 표가 통계를 낸 유배 관리 대상은 성명, 시기 및 유배지를 고증할 수 있는 이들이다. 그중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의 유배지는 모두 주(州) 관청 소재지로 귀속했다. 예를 들어, 선흠(宣歙) 절도사는 선주宣州(江南西道)로, 섬궤(陝虢) 관찰사는 섬주陝州(都畿道)로 귀속하였으며, 강서(江西)관찰사는 홍주洪州(江南西道)로, 호남(湖南)관찰사는 담주潭州(江南西道), 악악(鄂岳)관찰사는 악주鄂州(江南西道), 서천(西川)절도사는 익주益州(劍南道), 동천(東川)절도사는 재주梓州(劍南道), 평로군(平盧軍)은 청주靑州(河南道)로 귀속하였다.
- 2) 이 항의 통계수치는 ‘남예(南裔)’·‘영남(嶺南)’·‘영외(嶺外)’·‘영표(嶺表)’·‘남방(南方)’·‘원군(遠郡)’·‘원주(遠州)’·‘외주(外州)’·‘원처(遠處)’ 등지로 편적된 축신(逐臣)들의 연인원수를 포함한다.
- 3) 만약 관련 문헌의 기록 중에 언급된 유배관리의 수를 종합하여 통계를

약 8.27명의 유배 관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기적 분포로 볼 때, 초당(初唐) 598명, 성당(盛唐) 543명, 중당(中唐) 750명, 만당(晩唐) 711명, 오대(五代) 226명이다. 그중 오대(五代)의 인원수가 비교적 적은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네 시기 중 초당과 성당이 비교적 비슷하고, 중당과 만당의 수가 서로 비슷하다. 중당과 만당 때 인원수가 가장 많았다. 다섯 시기의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배관리의 빈도로 보자면, 초당(初唐) 95년동안 연평균 6.3명, 성당(盛唐) 53년은 연평균 10.2명, 중당(中唐) 61년은 연평균 12.3명, 만당(晩唐) 80년은 연평균 8.9명, 오대(五代) 53년은 연평균 4.3명이며, 그중 중당(中唐)이 가장 많다.

지역분포로 볼 때, 남방과 북방은 자못 큰 차이가 있다. 북방은 822명, 남방은 1,995명⁴⁾으로 북방의 2.43배이다. 그러나 남방의 여러 도(道) 중, 가장 많은 수는 영남도(嶺南道)로 연인원 436명에 달하며⁵⁾, 그 다음이 차례대로 강남서도(江南西道) 402명, 강남동도(江南東道) 277명, 산남동도(山南東道) 242명, 검남도(劍南道) 155명이고, 산남서도(山南西道)·회남도(淮南道)·검중도(黔中道)는 숫자가 조금 적어 각각 연인원 137·120·88명이다. 북방의 여러 도 가운데 하남도(河南道)가 가장 숫자로 196명에 이른다. 그 다음은 도기도(都畿道) 156명, 하동도(河東道) 148명, 경기도(京畿道) 134명이며, 하북도(河北道)·관내도(關內道)·농우도(隴右道)가 가장 수가 적어, 각각 84·72·32명에 불과하다. 만약 남방과 북방을 종합해서 보자면, 영남도(嶺南道)·강남서도(江南西道)의 유배 관리는 연인

내면, 당오대(唐五代)는 대략 연인원 3,641의 유배 관리가 있었다.

- 4) ‘남방(南方)’란의 통계수치는 ‘남방(南方)’·‘영남(嶺南)’·‘남예(南裔)’·‘영외(嶺外)’·‘영표(嶺表)’로 편적되었으나, 구체적인 주(州) 군(郡)의 언급이 없는 유배 관리의 연인원수를 포함하는데, 이런류의 유배관리는 전체 연인원 138명으로, 그 중 초당(初唐)은 66명, 성당(盛唐)은 38명, 중당(中唐)은 26명, 만당(晩唐)은 8명이다.
- 5) 만약 유배지를 ‘영남(嶺南)’·‘남예(南裔)’·‘영외(嶺外)’·‘영표(嶺表)’로 하는 유배관리의 연인원수를 영남도(嶺南道)에 포함하면, 그 통계수치는 574명에 달한다.

원 400명이상이 되어, 당오대 유배관리들이 가장 집중한 지역으로 첫 번째 등급에 속한다. 강남동도(江南東道)·산남동도(山南東道) 두 번째로, 유배관리는 연인원 200명이상이 되어, 두 번째 등급에 속한다. 하남도(河南道)·검남도(劍南道)·하동도(河東道)·산남서도(山南西道)·회남도(淮南道)·경기도(京畿道)·도기도(都畿道)의 유배관리는 연인원 200에서 100명 사이로, 대략 세 번째 등급에 속한다. 관내도(關內道)·하북도(河北道)·농우도(隴右道)·검중도(黔中道)는 모두 연인원 100명 이하로서, 네 번째 등급에 속한다. 이 네 가지 등급 중, 첫 번째·두 번째 등급은 모두 남방지역이고, 세 번째 등급 삼도(三道)는 남방지역에, 사도(四道)는 북방지역에 속하며, 네 번째 등급 가운데 검중도(黔中道)를 제외한 기타 삼도(三道)는 모두 북방지역에 속한다.

상술한 통계 결과는 관리들의 유배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는 중당(中唐)이며, 남방은 당나라 관리들의 대표 유배지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남방의 여러 도(道)중에 영남도(嶺南道), 강서남·동도(江南西·東道)와 산남동도(山南東道)는 황폐하고 편벽되어 있어, 관리들을 유배형벌로 처벌하는데 제일 먼저 손꼽는 곳이 되었다. 북방으로 유배된 관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수였다.

당오대(唐五代) 여러 시기, 여러 지역의 유배 관리의 총체적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거친 후, 우리는 당오대 각 조대(朝代)별로 각각 다양한 지역으로 유배된 유배 관리의 지역분포 상황에 대해 다시 고찰하였다. [표]2는 당오대 26조(朝) 대 유배된 관리들의 정황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 당오대(唐五代) 왕조별 15도 유배관리 분포표

地域 朝代	京畿道	关内道	都畿道	河南道	陇右道	河东道	河北道	山南东道	山南西道	江南东道	江南西道	淮南道	剑南道	黔中道	岭南道	总计
高祖	0	1	2	1	1	1	0	0	1	1	0	5	3	0	2	18
太宗	10	3	1	2	1	7	4	4	5	3	8	3	8	1	9	69
高宗	4	3	4	7	9	9	5	6	10	16	13	7	26	5	31	155
武后	4	10	4	16	5	8	10	8	13	13	16	9	11	8	29	164
中宗	4	0	4	5	1	4	7	1	4	6	5	5	8	2	23	79
睿宗	4	3	2	5	2	6	1	1	4	4	2	4	2	1	3	44
玄宗	20	4	17	48	2	29	26	33	17	49	51	15	19	18	71	419
肃宗	6	0	1	4	1	5	1	5	12	8	13	3	7	13	4	83
代宗	6	1	6	0	1	7	1	10	4	18	37	7	5	10	7	120
德宗	4	2	11	0	1	5	2	26	7	43	52	6	1	9	39	208
顺宗	0	0	1	0	0	0	0	1	3	2	0	0	1	0	0	8
宪宗	16	5	15	3	1	14	1	27	15	17	61	11	10	5	50	251
穆宗	5	0	4	1	0	5	1	7	5	9	22	2	5	1	16	83
敬宗	4	5	5	0	0	3	0	2	3	6	8	4	0	1	11	52
文宗	18	4	24	8	1	7	2	22	12	27	30	10	7	2	33	207
武宗	2	1	7	1	0	4	0	11	1	15	11	4	5	0	14	76
宣宗	4	4	17	8	0	2	2	16	4	14	24	5	6	0	16	122
懿宗	9	0	11	3	0	8	0	11	4	11	18	5	6	2	30	118
僖宗	7	0	8	6	1	2	2	11	8	5	6	3	2	0	15	76
昭宗	1	0	2	3	0	0	1	6	3	3	5	0	5	5	17	51
哀帝	0	1	1	34	0	0	6	0	1	0	0	1	0	0	9	53
后梁	1	0	1	9	0	1	2	2	1	0	0	3	13	1	3	37
后唐	3	13	4	15	1	19	9	13	0	1	4	2	4	4	2	94
后晋	1	10	2	3	4	1	1	9	0	4	5	2	0	0	1	43
后汉	0	2	0	2	0	0	0	1	0	2	2	3	0	0	0	12
后周	1	0	2	12	0	1	0	9	0	0	9	1	1	0	1	37
总计	134	72	156	196	32	148	84	242	137	277	402	120	155	88	436	2679

오대 할거(割據)정권의 유배 관리 상황은 당대와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오대(五代)의 연인원 223명을 빼고, 당대(唐代) 21조(朝) 289년 중에 성명·지역을 고증할 수 있는 유배관리의 총수는 2,456명에 달하며, 그 평균을 구해보면 연평균 8.5명이다. 다시 이 평균수와 상술한 여러 조대에서 조정 관리가 되는 시기·년간

유배 관리의 수로써 대조 환산해보면, 연간 유배 관리의 수에 있어 새로운 서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즉, 현종조(憲宗朝: 17.3명)·문종조(文宗朝: 15.9명)·현종조(玄宗朝: 9.5명)·선종조(宣宗朝: 9.0명)·의종조(懿宗朝: 8.4명)·덕종조(德宗朝: 8.2명)·무후조(武后朝: 7.8명)·대종조(代宗朝: 7.1명)·고종조(高宗朝: 4.5명)의 순이다. 말하자면 곧 헌(憲)·문(文)·현(玄)·선(宣) 네 조대에서는 연평균 유배되었던 관리의 수가 아홉 조대 평균수보다 모두 상위에 있고, 현종(憲宗) 한 조대에서는 14.5년간 유배 관리가 연인원 251명, 연평균 17.3명으로 당대에서 평균수보다 배 이상 높으며, 아홉 조대의 평균수보다 배에 가까운 정도로 높아, 가장 우위를 차지한다.

더 나아가 보자면, 각 조대에서 유배되었던 관리의 분포지역 또한 차이가 있다. 초당의 태종(太宗)·고종(高宗)·무후(武后)·중종(中宗) 조에는 유배지가 주로 영남 지역 위주였다. 성당 현종(玄宗) 한 조대에 영남으로 유배된 사람은 71명에 달해⁶⁾, 다른 지역을 한참이나 앞선다. 그러나 덕(德)·헌(憲)·목(穆)·경(敬) 조대에는 영남도(嶺南道)가 계속해서 수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빼고도, 강남서도(江南西道)로 유배되어지는 사람들 역시 많은 수를 차지한다. 만당(晩唐)에 들어서면, 문종(文宗)·선종(宣宗)·의종(懿宗)·희종(僖宗)·소종(昭宗)조대에서 유배되었던 관리는 영남도가 여전히 많았고, 기타 강남도(江南西道)·동도(東道) 및 산남동도(山南東道) 혹은 경기도(都畿道)·하남도(河南道)도 많아져 중당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특색을 보인다.

우리는 당오대 유배 관리 분포지역을 주(州)·부(府)로까지 더 세분화시켜, 각 도(道)가 관리하는 주(州)·부(府)로 유배된 관리수를 통계 내었다. 당오대 십오도(十五道) 299개 주(州)·부(府)의 유배관리가 거쳐 간 주(州)·부(府)의 숫자에 근거하여, 각 도(道)를 아래와 같이 배열한다. 영남도(嶺南道, 50)·검남도(劍南道, 32)·하남도(河南道, 26)·하북도(河北道, 24)·하동도(河東道, 22)·강남서도(江南西道, 20)·

6) 이 통계수치는 유배지를 ‘영남(嶺南)’·‘남예(南裔)’·‘남방(南方)’·‘영외(嶺外)’ 및 ‘영표(嶺表)’로 하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강남동도(江南東道, 19)·관내도(關內道, 19)·검중도(黔中道, 17)·산남동도(山南東道, 16)·산남서도(山南西道, 15)·회남도(淮南道, 14)·농우도(隴右道, 14)·도기도(都畿道, 6)·경기도(京畿道, 5). 이에 따르면, 당오대 유배 관리들이 분포한 지역은 매우 넓으며, 그중 특히 영남도(嶺南道)·검남도(劍南道)가 관할하는 주(州)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남북방 각 도(道)의 유배관리의 연인원의 많고 적음에 의거하여, 그 관할 주(州) 유배관리의 연인원에 대하여 통계를 통해 각 구체적인 지역이 유배관리와의 밀접한 관련 정도를 이해하고, 다른 시기의 동태적인 발전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몇몇 규칙성을 총결하고자 한다.

첫째, 유배된 관리가 연인원 20명 이상인 주(州)는 당오대 유배관리가 가장 집중되어 있고 가장 중시할만한 지역이다. 그 중 영남도(嶺南道)의 애주(崖州)·단주(端州)·계주(桂州)·순주(循州), 강남서도(江南西道)의 요주(饒州)·건주(虔州)·연주(連州)·침주(郴州)·담주(潭州)·무주(撫州)·영주(永州)·예주(澧州)·원주(袁州)·낭주(朗州), 강남동도(江南東道)의 목주(睦州), 산남동도(山南東道)의 형주(荊州)·상주(商州)·기주(夔州), 산남서도(山南西道)의 양주(梁州), 회남도(淮南道)의 양주(揚州)는 대부분 황폐하고 궁핍하여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남방으로 관리를 유배할 때 일순위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 유배 관리의 총수는 508명으로, 남방으로 유배된 관리 총수(연인원 1,995명)의 25.46%를 점하고 있다. 당오대 유배 관리의 총수(2,828명)의 17.96%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오대 유배 관리와 지역관계의 연구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북방지역의 여러 도(道) 중 유배 관리가 20명 이상인 주(州)는 조금 적은 편이다. 예를 들어, 하남도(河南道)의 등주(登州)·도기도(都畿道)의 낙양(洛陽)·함주(陝州)·하남부(河南府), 하동도(河東道)의 포주(蒲州), 경기도(京畿道)의 화주(華州)·동주(同州)·경조부(京兆府)·기주(岐州)등은 대부분 장안(長安)과 가까워, 생활조건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편이다. 그러나 유배 관리의 숫자로 보자면, 총수가 294명으로 북방지역으로 유배된 관리의 총수(822명)의 35.77%를 차지하며, 당오대 유배 관리의 10.4%를 차지한다. 그 중요성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둘째, 남방지역의 여러 도(道) 가운데, 영남도(嶺南道)·강남서도(江南西道)가 관할하는 여러 주(州)는 가장 중시할 만하다. 유배관이 연인원 10명이상인 주(州)를 계산해보면, 영남도가 19개 총 319명의 유배 관리가 있어서, 이 두 도(道) 유배 관리의 총 연인원 수(838명)의 38.07%를 차지하며, 당오대 유배관리 총수의 11.28%를 차지한다. 강남서도(江南西道)는 20개 총 402명의 유배관리가 있어서, 이 두 도(道)로 유배된 관리의 47.97%를 차지하며, 당오대(唐五代) 유배관리 총수의 14.21%를 차지한다. 양자를 서로 더하면, 총 721명의 유배관리가 있어 당오대 유배관리 수의 25.5%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십분의 삼에 가까운 당오대 유배관리들이 모두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살펴보면, 강남서도(江南西道)는 비록 유배관리의 총수량에 있어서는 영남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후자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유배관리가 50州에 있다) 있어, 각 주(州) 평균은 8.72명이 된다. 전자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집중(유배관리가 20州에 있다)되어 있기 때문에, 매 주(州) 평균은 연인원 20.1명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 주(州)의 유배 관리 수는 모두 영남도와 관련된 주(州)보다 훨씬 많은 수를 나타낸다. 이점은 당오대 유배 관리사(貶官吏)에 있어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부 주(州)는 일정기간 유배 관리사 상 비교적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초당 시기, 검남도(劍南道)의 휴주(舊州)는 유배 관리가 가장 많았으나, 중당에 이르러, 상황이 크게 변한다. 기존의 질서가 깨어지고, 몇몇 주(州)가 유배된 관리들이 가장 자주 “찾아 주는” 곳이 된다. 비교적 두드러지는 곳은 강남서도(江南西道)의 요주(饒州, 12)·연주(連州, 16)·건주(虔州, 17)·영주(永州, 14)·도주(道州, 12)·담주(潭州, 10)·침주(郴州, 11)·길주(吉州, 11), 영남도(嶺南道)의 애주(崖州, 14)·소주(韶州, 10)·뢰주(雷州, 10)·단주(端州, 9)이다. 중당 시기와 비교할 때, 만당은 몇몇 지역에서 변화를 찾을 수 없지만, 이전과 달라진 유배지는 경기도(京畿道)의 화주(華州, 20)·동주(同州, 9)가 있다.

III. 결론

당오대(唐五代) 340여 년간의 유배 관리의 상황을 총괄해보면, 각 시기 각 지역 간에 전반적으로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비록 절대수량에서 보자면, 중당(中唐)시기와 영남도(嶺南道)·강남서도(江南西道) 등지의 연인원 유배관리 수가 가장 많아 중시될 만 하지만, 이는 결코 기타 시기 기타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각 시대 각 지역은 모두 그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당시 정치 문화와 관련하여 발굴과 이용의 가치가 있으며, 유배관리의 생존 상태와 관련한 대량의 자료적 의미를 가진다. 이들 자료를 진지하게 분석 연구한다면, 당오대 유배관리의 전체 연구와 개별연구를 확대 심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贬官与地域

—计量学视野下的唐五代流贬文学研究—

尚永亮(中國, 武漢大學)

唐五代三百四十余年间, 有姓名可考并有贬地记载的贬官共2828人次。从其分布时期看, 中晚唐人次最多; 而列前九位者依次为宪宗、文宗、玄宗、宣宗、懿宗、德宗、武后、代宗、高宗诸朝。从其分布地域看, 南方是唐王朝流贬官员的主要地区, 岭南道、江南西、东道和山南东道因荒远偏僻, 更成了处置贬官的首选之地, 就中岭南道、江南西道所辖39州共有贬官721人次, 占唐五代贬官总数的25. 5%, 故最值得重视。

作为一种特殊的政治文化现象, 贬谪与贬谪文学已引起文史学界的积极关注, 但在研究方法上, 多数研究者还是运用传统的历史文化批评法, 而相对缺乏对唐五代贬官之整体数量及其分布时期、分布地域的实证性的考察。这样一来, 既易于导致其理论分析与历史实际一间有隔, 也不易获得对唐五代三百四十余年贬官情形的动态把握。有鉴于此, 本文尝试以统计学的方法, 对唐五代贬官之时空分布及其发展变化进行定量分析, 以期对此一论题的研究有所拓展, 有所深化。

在时期划分上, 我们依据传统的四唐说, 加上五代, 共分为五个大的时段。其时间起迄分别为: 初唐: 高祖武德至玄宗开元初(618-713), 盛唐: 开元初至代宗大历初(713-766), 中唐: 大历初至文宗大和初(766-827), 晚唐: 大和初至唐末(827-907), 五代: 后梁开平初至后周显德末(907-960)。在地域划分上, 则依据唐之十五道进行考察。唐太宗时, 曾依山川形势将全国分为十道, 至玄宗开元时, 又扩充为十五道。其中地处秦岭、淮水以北者七道, 即关内、陇右、河东、河北、河南、京畿、都畿诸道, 大致属于北方地区; 地处秦岭、淮水以南者八道, 即剑南、山南东、山南西、淮南、岭南、江南东、江南西、黔中诸道, 基本属于南方地区。当然, 在实际上, 有些道往往地跨南北, 亦彼亦此, 如淮南道、山南东、山南西诸道的北部地区, 即当属

北方；故这里的南北划分，只能是一个总体上的区划，而不好将之从细部一一坐实的。

将通过阅读多种文献史料所得数据按上述时空划分法制成表格，便有了如下所示唐五代贬官人次时空分布总表：

表1 唐五代贬官人次时空分布表⁷⁾

时期 地域		初唐	盛唐	中唐	晚唐	五代	总计
北方	京畿道	26	26	35	41	6	134
	关内道	20	4	13	10	25	72
	都畿道	17	18	42	70	9	156
	河南道	36	52	4	63	41	196
	陇右道	19	3	3	2	5	32
	河北道	27	27	5	13	12	84
	河东道	35	34	34	23	22	148
南方	淮南道	33	18	30	28	11	120
	山南东道	20	38	73	77	34	242
	山南西道	37	29	37	33	1	137
	江南东道	43	57	95	75	7	277
	江南西道	44	64	180	94	20	402
	剑南道	58	26	22	31	18	155
	黔中道	17	31	26	9	5	88
	岭南道	97	75	123	134	7	436
其他 ⁸⁾		69	41	28	8	3	149
总 计		598	543	750	711	226	2828

据表1可知，唐五代有姓名可考并有贬地记载的贬官共2828人次⁹⁾，而唐五代共342年，求其平均数，则每年约有贬官8.27人次。从时期分

7)此表所统计的贬官对象仅为有姓名、时期及贬地可考者。其中观察使、节度使之贬地皆归入其所治州，如宣歙观察使归宣州（江南西道），陕虢观察使归陕州（都畿道），江西观察使归洪州（江南西道），湖南观察使归潭州（江南西道），鄂岳观察使归鄂州（江南西道），西川节度使归益州（剑南道），东川节度使归梓州（剑南道），平卢军归青州（河南道）。

8)此行数据包括被贬往“南裔”、“岭南”、“岭外”、“岭表”、“南方”、“远郡”、“远州”、“外州”、“远处”等地的逐臣人次。

9)若将有文献记载中可见及的贬官数综合统计，则唐五代约有贬官3641人次。

布看，初唐598人次，盛唐543人次，中唐750人次，晚唐711人次，五代226人次。其中除五代人次较少外，其它四个时期，初、盛唐较接近，中、晚唐较接近，而以中唐和晚唐人次最多。因五个时段长短不同，若以贬官频率而论，初唐95年，年均6.3人次；盛唐53年，年均10.2人次；中唐61年，年均12.3人次；晚唐80年，年均8.9人次；五代53年，年均4.3人次，其中仍以中唐为最。究其原因，中唐自宪宗至敬宗二十余年均是贬官高峰期，德宗二十余年贬官频率也较高，仅代宗一朝较低，与唐五代平均数持平。故中唐虽时间不长，但贬官总数与年均人次都居首位。五代割据政权受地域限制和人才流动影响，贬官总数与年均人次都远低于平均水平。

从地域分布看，南方与北方悬殊颇大。北方822人次，南方1995¹⁰⁾人次，为北方的2.43倍。而在南方诸道中，数量最多的是岭南道，高达436¹¹⁾人次，其下依次是江南西道，402人次；江南东道，277人次；山南东道，242人次；剑南道，155人次；至于山南西道、淮南道、黔中道，则人数稍少，分别为137、120、88人次。在北方诸道中，以河南道最高，为196人次；其它依次为都畿道，156人次；河东道，148人次；京畿道，134人次；河北道、关内道、陇右道最少，分别仅为84、72、32人次。若将南北方综合起来看，则岭南道、江南西道贬官人次达400以上，是唐五代贬官最集中的地区，属于第一层级。江南东道、山南东道次之，贬官人次都在200以上，属于第二层级。河南道、剑南道、河东道、山南西道、淮南道、京畿道、都畿道的贬官人次在200—100之间，大抵属于第三层级。至如关内道、河北道、陇右道、黔中道均在百人以下，属于第四层级。在这四个层级中，第一、第二层级全部是南方地区，第三层级有三道属南方地区，四道属北方地区，第四层级除黔中道外，其他三道全部属于北方地区。

10)“南方”一栏的数据包括贬往“南方”、“岭南”、“南裔”、“岭外”、“岭表”然未言具体州郡的贬官人次，此类贬官共计138人次，其中初唐66人次，盛唐38人次，中唐26人次，晚唐8人次。

11)如将贬地为“岭南”、“南裔”、“岭外”、“岭表”的贬官人次计入岭南道，则其数据可达574人次。

上述统计结果说明, 中唐是贬官最盛的时期, 而南方则是唐王朝流贬官员的主要地区。在南方诸道中, 岭南道、江南西、东道和山南东道因其荒远偏僻, 更成了处置贬官的首选之地。相比之下, 北方的贬官就少了许多, 其中人次最多的河南道, 也比南方的岭南道和江南西道少了一半以上。至如陇右道、河北道, 因有少数民族的不时侵扰和藩镇的割据, 贬官就尤其稀少了。

细读表1, 我们还可以发现一些值得注意的问题。首先, 初唐时期, 贬官人次较多的, 北方主要为河南道(36)、河东道(35), 南方则主要是岭南道(163¹²⁾)、剑南道(58)。这四个地区贬官人次之和, 已达292, 占初唐贬官总数的半数以上; 盛唐时期, 北方仍然以河南道(52)、河东道(34)为多, 南方除岭南道(113¹³⁾)继续领先外, 江南西道(64)、东道(57)大量增加, 剑南道(26)则显著减少。这五个地区贬官人次之和达到320人次, 占盛唐贬官总数的58.93%。这种情况说明, 在从初唐到盛唐的一百五十年间, 北方的河南道、河东道, 南方的岭南道、江南西、东道等地, 乃是唐代贬官的首选之地。

其次, 到了中唐, 北方占领先地位的分别是都畿道(42)、京畿道(35)、河东道(34), 南方则是江南西道(180)、岭南道(149)¹⁴⁾, 其贬官人次之和为440, 占中唐贬官总数的58.67%。晚唐时期, 北方以都畿道(70)、河南道(63)为多, 南方仍以岭南道(142)¹⁵⁾、江南西道(94)领先。其人次之和为369, 占晚唐总数的51.9%。据此可知, 在中晚唐的一百四十年间, 除南方的岭南道、江南西道, 北方的河南道等地继续保持领先地位外, 北方的都畿道以及京畿道等地在贬官人次上也有了显著的增长。

其三, 到了五代, 除北方的河南道(41)、南方的山南东道(34)的贬官人次稍多外, 其他地区人次锐减, 因战乱和割据的影响, 岭南道、江南东道等地已较少贬官了。

12) 此数据包含贬地为“岭南”、“南裔”、“岭外”、“岭表”的贬官人次。

13) 此数据包含贬地为“岭南”、“南裔”、“岭外”、“岭表”的贬官人次。

14) 此数据包含贬地为“岭南”、“南裔”、“岭外”、“岭表”的贬官人次。

15) 此数据包含贬地为“岭南”、“南裔”、“岭外”、“岭表”的贬官人次。

在大致了解了唐五代不同时期、不同地域贬官的总体情形后，我们再来考察唐五代各朝贬官在不同地域的分布情况。

表2 唐五代各朝十五道贬官分布表

地域 朝代	京畿道	关内道	都畿道	河南道	陇右道	河东道	河北道	山南东道	山南西道	江南东道	江南西道	淮南道	剑南道	黔中道	岭南道	总计
高祖	0	1	2	1	1	1	0	0	1	1	0	5	3	0	2	18
太宗	10	3	1	2	1	7	4	4	5	3	8	3	8	1	9	69
高宗	4	3	4	7	9	9	5	6	10	16	13	7	26	5	31	155
武后	4	10	4	16	5	8	10	8	13	13	16	9	11	8	29	164
中宗	4	0	4	5	1	4	7	1	4	6	5	5	8	2	23	79
睿宗	4	3	2	5	2	6	1	1	4	4	2	4	2	1	3	44
玄宗	20	4	17	48	2	29	26	33	17	49	51	15	19	18	71	419
肃宗	6	0	1	4	1	5	1	5	12	8	13	3	7	13	4	83
代宗	6	1	6	0	1	7	1	10	4	18	37	7	5	10	7	120
德宗	4	2	11	0	1	5	2	26	7	43	52	6	1	9	39	208
顺宗	0	0	1	0	0	0	0	1	3	2	0	0	1	0	0	8
宪宗	16	5	15	3	1	14	1	27	15	17	61	11	10	5	50	251
穆宗	5	0	4	1	0	5	1	7	5	9	22	2	5	1	16	83
敬宗	4	5	5	0	0	3	0	2	3	6	8	4	0	1	11	52
文宗	18	4	24	8	1	7	2	22	12	27	30	10	7	2	33	207
武宗	2	1	7	1	0	4	0	11	1	15	11	4	5	0	14	76
宣宗	4	4	17	8	0	2	2	16	4	14	24	5	6	0	16	122
懿宗	9	0	11	3	0	8	0	11	4	11	18	5	6	2	30	118
僖宗	7	0	8	6	1	2	2	11	8	5	6	3	2	0	15	76
昭宗	1	0	2	3	0	0	1	6	3	3	5	0	5	5	17	51
哀帝	0	1	1	34	0	0	6	0	1	0	0	1	0	0	9	53
后梁	1	0	1	9	0	1	2	2	1	0	0	3	13	1	3	37
后唐	3	13	4	15	1	19	9	13	0	1	4	2	4	4	2	94
后晋	1	10	2	3	4	1	1	9	0	4	5	2	0	0	1	43
后汉	0	2	0	2	0	0	0	1	0	2	2	3	0	0	0	12
后周	1	0	2	12	0	1	0	9	0	0	9	1	1	0	1	37
总计	134	72	156	196	32	148	84	242	137	277	402	120	155	88	436	2679

表2分列了唐五代二十六朝的贬官情形。五代割据政权的贬官情形与唐代差异较大，如除开五代的223人次，则唐代21朝289年中，有姓名、地

域可考的贬官总数为2456人次，求其平均数，则年均贬官8.5人次。将此21朝按贬官人次的多寡依次排列，位居前九名的分别为玄宗朝（419）、宪宗朝（251）、德宗朝（208）、文宗朝（207）、武后朝（164）、高宗朝（155）、宣宗朝（122）、代宗朝（120）、懿宗朝（118）。这九朝的贬官人次均在百人以上，总计1764人次，占唐五代贬官总数的65.85%。值得注意的是，这九朝的实存时间长短不一，而在一般情况下，时间的长短与贬官的多寡成正比例的关系，如果将每朝立朝的时间综合计入，则以上诸朝按时间长短排列，依次为玄宗朝（44年）、高宗朝（34.5年）、德宗朝（25.5年）、武后朝（21年）、代宗朝（17年）、宪宗朝（14.5年）、懿宗朝（14年）、文宗朝（13年）、宣宗朝（13.5年），其总年数为197年。将1764人次平均到197年中，则每年约有贬官8.9人次。这一数字，已高于唐代年均8.5的贬官人次。如果再以此平均数与上述诸朝立朝时间、年贬官人次作一比照和换算，我们就会发现一个新的关于贬官人次多寡的序列：宪宗朝（17.3）、文宗朝（15.9）、玄宗朝（9.5）、宣宗朝（9.0）、懿宗朝（8.4）、德宗朝（8.2）、武后朝（7.8）、代宗朝（7.1）、高宗朝（4.5）。这就是说，宪、文、玄、宣四朝年均贬官人次都在九朝平均数之上；而宪宗一朝在14.5年间贬官251人次，年均17.3，较之唐代平均数高出一倍有余，较之九朝平均数高出近一倍，位居榜首；文宗朝14年间贬官207人次，年均15.9，位居第二；玄宗朝9.5的年均数也高于九朝贬官平均数。宣宗朝9.0略同于九朝平均数，高于唐代平均数，只有懿宗、德宗、武后、代宗、高宗五朝低于唐代贬官的平均数，其中懿宗、德宗朝与唐代年均数很接近¹⁶⁾。此外尚需注意的是，穆宗一朝虽仅短短四年，贬官已达83人

16)这里的朝代序列是以唐代有姓名及贬地可考的数据2456（唐代之2679—五代之223）人次为基础的，若以上节《各朝贬官概述》中的数据来分析，其序列又略有不同。唐代有姓名可考的贬官总数为3067人次，年均10.6人次。居此平均数之上者依次为宪宗朝20.6、文宗朝17.2、玄宗朝11.9、德宗朝11.2、武后朝11.0；与之持平者为宣宗朝，10.6；居平均数之下者为懿宗朝10.0、代宗朝8.9、高宗朝6.0。其中除宣宗朝、懿宗朝各后移2位，德宗朝、武后朝各前移1位外，皆无大变动。由此看来，这一序列在总体上应是可信的。

次，这样一个数量，在绝对值上虽不算多，但年均贬官人次却高达20.8，位居各朝年均数的前列；至如睿宗朝2年，贬官44人次，年均22；哀帝朝2.5年，贬官53人次，年均21.2；敬宗朝3年，贬官52人次，年均17.3；中宗朝5.5年，贬官79人次，年均14.4；肃宗朝6年，贬官83人次，年均13.8，均已远超唐代年均数和九朝年均数。当然，这样一种仅以年均数来定其先后的方法还不尽全面，考察贬官的高潮期，还应与该朝贬官的总数及其在唐代贬官史上的影响结合起来，与各朝的文化精神和政治斗争之性质以及贬官的个人影响力结合起来，庶几得出较为确当的结论。然而，上述数据却能从一个方面说明不同朝代间贬官的大致差别，有助于我们对唐代贬官情形的基本了解。

进一步看，各朝贬官的分布地域也有差别。在唐五代二十六朝中，高祖、睿宗、顺宗、敬宗、武宗、哀帝诸朝立朝时间较短，贬官人次略少，在贬谪地域上，差别不甚明显；五代诸朝因战乱和所占领土不广，除后唐贬官人次稍多外，其余均在50人次以下，所贬地域亦主要在其辖区之内。至如初唐之太宗、高宗、武后、中宗诸朝，贬地已以岭南为主；盛唐玄宗一朝，贬赴岭南者高达71¹⁷⁾人次，遥遥领先于其它地域；贬往河南道、江南东、西道者也开始大量增加，呈现出与初唐不同的趋势。盛、中唐交界的肃、代两朝，因安史之乱及其影响，贬赴岭南者骤减，贬赴江南西、东道者稍多；而德、宪、穆、敬诸朝，除岭南道继续领先外，贬赴江南西道者亦居高不下。进入晚唐，文宗、宣宗、懿宗、僖宗、昭宗诸朝的贬官仍以岭南道为夥，其它则多在江南西、东道以及山南东道或都畿道、河南道，展示了与中唐时期略有不同的一些新的特点。

在前列二表的基础上，我们将唐五代贬官分布地域进一步细化到州、府，对各道所辖州、府的贬官人次作一统计。显示的是唐五代十五道299个州、府的贬官情况。根据贬官所涉及州、府的多寡，各道依次排列如下：岭南道（50）、剑南道（32）、河南道（26）、河北道（24）、河东道（22）、江南西道（20）、江南东道（19）、关内道（19）、黔中

17) 此数据未包含贬地为“岭南”、“南裔”、“南方”、“岭外”及“岭表”者。

道(17)、山南东道(16)、山南西道(15)、淮南道(14)、陇右道(14)、都畿道(6)、京畿道(5)。据此可知,唐五代贬官分布的地域十分广阔,其中尤以岭南道、剑南道所辖州为多。当然,各道所涉及州、府的多寡与贬官人次的多少并无内在的必然联系,但由此却可反映出贬官的分布情形,提供研究贬官与地域关系的必要数据。

下面,再依南北方各道贬官人次的多寡,对其所辖州贬官人次作一统计,从中既了解各具体地区之与贬官关联的密切程度,又考察其不同时期的动态发展。

先看南方诸道。岭南道:贬官20人次以上的地区,有崖州(37)、端州(30)、桂州(23)、循州(20);贬官10人次以上的地区,有广州(18)、康州(18)、雷州(17)、韶州(15)、贺州(15)、潮州(14)、昭州(14)、柳州(14)、爱州(13)、驩州(13)、儋州(13)、封州(12)、钦州(12)、象州(11)、新州(10)。

江南西道:贬官20人次以上的地区,有虔州(30)、连州(30)、饶州(29)、洪州(25)、抚州(25)、永州(24)、郴州(23)、潭州(22)、袁州(21)、朗州(20);贬官10人次以上的地区,有道州(19)、吉州(18)、江州(18)、宣州(17)、洪州(17)、鄂州(16)、岳州(15)、衡州(12)、邵州(11)、池州(10)。

江南东道:贬官20人次以上的地区,有睦州(25)。贬官10人次以上的地区,有常州(19)、苏州(18)、润州(18)、括州(17)、湖州(17)、杭州(16)、建州(16)、泉州(16)、歙州(15)、汀州(15)、衢州(15)、婺州(15)、台州(13)、越州(12)。

山南东道:贬官20人次以上的地区,有荊州(30)、夔州(23)、商州(20)。10人次以上的地区,有房州(19)、襄州(19)、峡州(18)、邓州(16)、忠州(15)、随州(14)、复州(13)、均州(12)、郢州(11)、金州(10)。

剑南道:贬官10人次以上地区,有雋州(15)、梓州(14)、益州(14)。

山南西道:贬官20人次以上地区,有梁州(28);10人次以上地区,有巴州(14)、通州(15)、涪州(13)、开州(10)。

淮南道:贬官20人次以上地区,有扬州(23);10人次以上地区,有蕲州(15)、安州(12)、庐州(13)、和州(11)。

黔中道:贬官10人次以上地区,有播州(13)、黔州(10)。

再看北方诸道。河南道：贬官20人次以上地区，有登州（26）。贬官10人次以上地区，有汴州（12）、徐州（16）、许州（13）、亳州（12）、宋州（10）、莱州（12）、青州（14）。

都畿道：贬官20人次以上地区，有河南府（43）、东都洛阳（40）、陕州（27）；10人次以上地区，有汝州（19）、郑州（16）、怀州（11）。

河东道：贬官20人次以上地区，有蒲州（31）；10人次以上地区，有绛州（19）、虢州（18）、晋州（14）、汾州（12）。

京畿道：贬官20人次以上地区，有华州（47）、同州（31）、岐州（28）、京兆府（21）。

关内道：10人次以上地区，有丰州（11）、灵州（10）。

河北道与陇右道：其管辖地区之贬官人次均在10人次以下。

对以上数据加以分析，似可得出如下结论：

其一，贬官20人次以上州，是唐五代贬官最集中也最值得重视的地区。其中岭南道的崖州、端州、桂州、循州，江南西道的饶州、虔州、连州、郴州、潭州、抚州、永州、澧州、袁州、朗州，江南东道的睦州，山南东道的荆州、商州、夔州，山南西道的梁州，淮南道的扬州，大都荒远穷恶，是贬谪南方官员的首选之地；其贬官数量的总和，共508人次，占南方贬官总数（1995）的25.46%，占唐五代贬官总数（2828）的17.96%，因而在唐五代贬官与地域关系的研究中，具有举足轻重的作用。相比之下，北方诸道贬官20人次以上州要少一些，如河南道的登州、都畿道的洛阳、陕州、河南府，河东道的蒲州，京畿道的华州、同州、京兆府、岐州等，大都距长安较近，生活条件相对优越。但若就贬官数量看，其总和294人次，占北方贬官总数（822）的35.77%，占唐五代贬官总数的10.4%，其重要性亦不容忽视。

其二，在南方诸道中，岭南道、江南西道所辖诸州最值得重视。就其贬官10人次以上州计，岭南道19个，共有贬官319人次，占该二道贬官总人次（838）的38.07%，占唐五代贬官总数的11.28%；江南西道20个，共有贬官402人次，占该二道贬官总人次的47.97%，占唐五代贬官总数的14.21%；二者相加，共有贬官721人次，占唐五代贬官数的25.5%。也就是说，近十分之三的唐五代贬官都集中到了上述地区。进一步

看, 江南西道虽然在贬官总量上不及岭南道, 但由于后者地域分散(有贬官者50州), 每州平均8.72人次; 前者地域相对集中(有贬官者20州), 每州平均20.1人次, 故其多数州的贬官人次均远远超过了岭南道相关州的数量, 形成唐五代贬官史上的一个独特现象。

其三, 若干州在不同时期的贬官史上具有较为突出的地位。初唐时期, 以剑南道的雋州贬官最多, 共14人次; 其次为京畿道的岐州(8)、同州(7)、京兆府(7), 河东道的絳州(6), 都畿道的陕州(6)、河南道的青州(6)、淮南道的扬州(8)、山南西道的梁州(7)、江南东道的睦州(8)、括州(6)、岭南道的钦州(9)、爱州(7)、振州(7)、桂州(6)、交州(6)。盛唐时期, 各州贬官人次大抵较为均衡, 稍突出的有京畿道的华州(8)、岐州(9)、山南东道的荆州(8)、河东道的絳州(7)、山南西道的涪州(6)、江南东道的睦州(6)、江南西道的抚州(6)、袁州(6)、岭南道的潭州(7)。到了中唐, 情况发生了较大的变化, 原有的均衡被打破, 一些州成为贬官最常“光顾”之地, 其较突出者是江南西道的饶州(12)、连州(16)、虔州(17)、永州(14)、道州(12)、潭州(10)、郴州(11)、吉州(11), 岭南道的崖州(14)、韶州(10)、雷州(10)、端州(9), 江南东道的泉州(11)、汀州(11), 山南东道的夔州(14)、都畿道的河南府(17)、京畿道的华州(14)、河东道的虢州(10)。它如淮南道的扬州(8)、山南东道的荆州(8)、忠州(8)、峡州(8)、山南西道的梁州(7)、开州(7)、河东道的蒲州(8)、岭南道的广州(9)等, 也都需要注意。与中唐相比, 晚唐除部分区域有所沿袭外, 又有一些不同, 主要贬官地域有京畿道的华州(20)、同州(9)、都畿道的洛阳(25)、河南府(22)、河南道的徐州(10)、河东道的蒲州(9)、山南东道的荆州(12)、峡州(8)、山南西道的梁州(14)、江南东道的苏州(8)、江南西道的宣州(9)、澧州(9)、连州(8)、岭南道的端州(13)、崖州(12)、循州(10)。时至五代, 河南道的登州(20), 山南东道的商州(10)、房州(7)较为突出。

综括唐五代三百四十余年的贬官情形, 可以看出各时期、各地域间均存在许多差异。虽然从绝对数量上看, 中唐时期与岭南道、江南西道等地贬官人次最多, 也最值得重视, 但这并不是说, 其它时期、其它地域不重要。事实上, 各个时期、各个地域都有其独特性, 都有其可资发掘

和利用的与当时政治、文化相关，与贬官生存状态相关的大量资料。认真梳理、研究这些资料，无疑可以扩大并深化唐五代贬官的整体研究和个案研究。我们希望在以后的研究中，能在此基础上有进一步的拓展。

Abstract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Time and Area Distribution of the Exiles in Tang Dynasty and Five Dynasties

Shang, Yong-Liang*

Exile and exile literature have already sparked a great deal of interest in literature and history, and many researchers still apply the traditional historical culture critics. However, there is a relatively inadequate among the total number of exile officials in the Tang Dynasty and Five Dynasties, the eras and regions of their distribu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gave quantitative analysis of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exile officials in Tang Dynasty and Five Dynasties. During the period(621~960) of 340 years, there are 2,828 people who have recorded the numbers of exile officials. At the era of the distribution, the middle Tang Dynasty is most prevalent. As a distribution region, the ruined and isolated southern provinces were suitable for exile. But that is not to say that the rest of the eras and regions are unimportant. Each era and each region has its originality, and all of them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olitical culture.

Keywords: Tang Dynasty, Five Dynasties, Exile Officials, quantitative analysis, eras and regions of distribution

* Wuhan University, China

濟州島研究 48집

교신: 尙永亮 中国 湖北省 武汉市 武昌区 八一路 299号
武汉大学 文学院 430072

(E-Mail: ylshang108@163.com)